

# 제약·바이오업계, 지배구조 개편 나선다... 미래 경쟁력 확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승호·이호승 이사선임 안건 상정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결정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사회 개편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미지

이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잇따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먼저 오는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한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과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각각 신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기존대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유승호 신규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삼성전자 본사 및 프랑스 구주 법인 등에서 경영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존립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고, 이중 3명의 임기 만료일은 이달 21일로 이사회 재편은 예고되어 왔다.

셀트리온은 오는 25일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서정진 회장은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성장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략 수립부터 직접 영업까지 산업 현장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웅은 경영 안정화로 기업 성장에 속도를 낸다. 오는 2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할 대웅은 윤재춘 대웅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박성수 대웅 제약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대웅은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3년+중임'으로 구성된 이상적 경영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1999년부터 대웅제약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제약 산업 전문가다. 박성수 대표는 보물리움 특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주도하는 등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미약품그룹도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중훈 형제 측이 5대 5 동수를 이뤄내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모녀 측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해 한미약품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에는 사보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등 형제 측 이사진이 사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8명이 남으면서 모녀 측이 영향력이 커졌다. 다만 모녀 측 이사진인 신유철(사외이사), 김용덕(사외이사), 곽태선(사외이사) 등 3

명의 임기는 이달 24일 만료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 10명 중 총 5명의 공백이 생겨 이번 주총에서 대폭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 3명 이상 10명 이내, 이 중 사외이사는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임시 주총에서 자동 폐기된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선임의 건이 다시 상정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대표이사 변경도 공시했다. 기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

보령, 대원제약 등 중견 제약사들도 창업주 일가 중심의 경영 승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한다. 보령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정균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원제약도 백조나단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의결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2종 美 품목 허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애포즈마 포함 올해 3건 허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선점 박차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테노수맷)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오센벨트'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오센벨트는 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예방을 비롯해 골거대세포종 등 치료까지 두 제품 모두 각각 오리지널 의약품이 미국에서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비롯해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 품목 허가에 속도를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관련 경쟁 제품 중 처음 허가를 획득해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유럽에서도 품목허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종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만 미국에서는 애포즈마를 비롯한 3건의 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에서는 아이텐젤트,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애포즈마 등 지난달에만 총 4개 제품의 허가를 추가했다.

셀트리온 측은 "자체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성장 역량을 재입증하고 있다"며 "후속 파이프라인의 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허가 받은 제품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매출 확대를 이뤄내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비보존제약,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상'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개발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가 지난 28일 열린 제26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에서 신약개발부문을 수상했다. /비보존제약

비보존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 신약 '어나프라주'를 개발한 공로로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은 국내 최초의 신약개발 분야 상으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38호 국산 신약 '어나프라주'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어나프라주'는 수술 후 중증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다. 신경전달물질인 글라이신과 세로토닌을 전달하는 수용체들을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신호 전달을 차

단한다. 이와 관련 비보존제약은 복강경 대장 절제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는 "올해 어나프라주 국내 출시를 통해 통증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국산 신약의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이문셀엘씨주' 간세포암 재발 위험 68% ↓

지씨셀 임상 유효성 데이터 확인

지씨셀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가 초기 간세포암환자의 재발 위험을 68%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씨셀은 해당 연구 내용이 최근 SCI(과학인용색인)급 국제 저널인 '캔서스'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문셀엘씨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실제 처방 데이터로 재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치적 치료(수술 또는 고주파열 치료)를 받은 초기 간세포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치료만 받은 환자군과 이문셀엘씨주를 추가

투여한 환자군을 전체 환자 수의 절반인 49명씩 각각 나눠 비교 분석했다.

중간관측 기간은 이문셀엘씨주 그룹이 19.1개월, 대조군이 67.7개월이었다. 그 결과, 이문셀엘씨주를 투여한 환자군의 무재발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재발 위험이 68% 감소했다.

전반적 생존율(OS) 분석에서는 두 군 모두 아직 중간값에 도달하지 않아 명확한 비교가 어려웠으나, 치료 후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이혜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근치적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이문셀엘씨주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 롯데리아 '뭇난이 치즈감자'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2025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한 디저트 신 메뉴 '뭇난이 치즈감자'를 오는 6일 출시한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가 경작한 감자 활용과 함께 맛과 품질은 우수하나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를 주 원재료로 사용해 디저트 신 메뉴 뭇난이치즈 감자를 개발했다.

내·외부 고객 대상 선호도 조사 시 감자와 치즈 조합에 대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매쉬드 포테이토를 튀긴 감자볼과 체다크림 치즈소스, 옥수수콘의 조합하여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 스타벅스, '슈크림 페스티벌' 개최

'슈크림 말차 라떼' 신제품 선봬

3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슈크림 페스티벌이 열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스테디 셀러 '슈크림 라떼'와 슈크림 라떼를 말차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슈크림 말차 라떼'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말차와 슈크림이 어우러진 달콤쌉쌀한 맛의 음료로 푸른 새싹을 연상시키는 초록 빛깔 비주얼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는 '슈크림 라떼' 출시를 기념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멤버십 그린, 골드 회원이 스타벅스 카드로 슈크림 라떼 2종 구매 시 한 잔당 별 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Double Star'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성수동 인근 매장 일부를 슈크림 라떼 팝업스토어로 선보인다. '뚝섬역교차로점', '성수역점', '성수점', '뚝섬역점', '서울숲역점' 매장 외부를 슈크림 라떼 관련 이미지로 랩핑해 싱그러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